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22, Vol. 34, No. 2, 623-642

반려동물 상실 애도와 심리적 성장의 관계: 의미재구성과 긍정적 사회적 반응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 성 아 유 성 경†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 대학원생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 교수

본 연구는 반려동물을 상실한 사람들의 애도와 심리적 성장의 관계에서 애도에 대한 의미재구성의 매개효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의미재구성의 매개효과를 긍정적 사회적 반응이 조절하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국내 일반 성인남녀 중 반려동물을 죽음으로 상실한 지 6개월 이상 경과한 369명에게 지속애도, 애도에 대한 의미재구성, 긍정적 사회적 반응,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고, 수집된 자료로 빈도분석, 의미재구성의 매개효과 검증, 긍정적 사회적 반응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각 변인들 간에 유의한 상관이 있었고, 반려동물 상실로 인한 애도가 의미재구성을 통하여 심리적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 사회적 반응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반려동물 상실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겪는 사람들로 하여금 상실의 의미를 재구성하고 심리적 성장에 이르도록 조력하기 위해 긍정적 사회적 반응을 충분히 제공하는 치료적 개입이 도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 반려동물 상실 애도, 지속애도, 의미재구성, 긍정적 사회적 반응, 외상 후 성장

---

* 본 연구는 한성아(2020)의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반려동물 상실 애도와 심리적 성장의 관계에서 의미재구성과 긍정적 사회적 반응의 조절된 매개효과' 중 일부를 발췌, 수정한 내용임.

† 교신저자 : 유성경,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Tel : 02-3277-3911, E-mail : skyoo@ewha.ac.kr

현대사회에서 반려동물은 인간과 정서적 교감을 형성하는 대상으로, 인간이 반려동물과 형성하는 애착은 인간과 맺는 애착과 유사한 안정감과 만족감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세영, 박형인, 2018; Amiot & Bastian, 2015; Field, Orsini, Gavish, & Packman, 2009; Kurdek, 2009; O. Rujoiu & Rujoiu, 2014). 반려동물 문화가 일찍이 발달한 서구 문화권에 이어 우리나라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하고 관련 문화도 변화하고 있는 추세로, 2019년도 기준 전국 2,238만 가구 중 26.4%인 591만 가구, 즉 네 가구 중 한 가구 이상의 비율로 개,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의 21.9%와 비교해 꾸준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20). 대표적인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의 수명은 10～20년 이내로 인간의 수명보다 짧아, 대부분의 반려인은 반려동물을 죽음으로 상실하는 경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반려동물 상실 이후 다양한 스펙트럼의 애도반응을 경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서적 애착관계를 형성하던 반려동물을 죽음으로 상실한 사람은 중요한 타인을 상실했을 때와 유사한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박주은, 2013; Kellehear & Fook, 1997; Kenneth, 2006). 즉, 반려동물 상실을 경험한 반려인 중 일부는 꽤 심각한 수준의 애도반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반려동물과 관련한 국내의 사회문화적 현상에 주목하여, 반려인들의 애도과정에서 어떤 요소를 고려할 때 그들이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적응과 성장에 이르도록 조력할 수 있을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 상실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심리치료적 개입에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여 상담 실무현장에서 참조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까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던 반려동물 상실 관련 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반려동물 상실로 인한 애도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 사별 애도와 관련된 주요 변인의 이론들과, 반려동물 상실 애도를 다룬 선행연구들의 검토가 동시에 필요하다. 우선 애도반응(grief reaction, grief process)이란 중요한 대상의 상실로 인한 심리적인 과정을 뜻한다. 이는 그리움, 갈망, 침투적 사고, 슬픔, 외로움, 두려움, 절망, 에너지 감소, 비난, 분노, 고립, 죄책감, 무의미함 등 복합적인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상태이며, 좌절을 견디고 받아들이는 과정이자, 상실 이후의 삶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과정도 포함한다(최선재, 안현의, 2013; Shear & Shair, 2005; M. S. Stroebe, Hansson, Stroebe, & Schut, 2001).

상실을 경험하면 대개 시간이 흐르면서 슬픔과 상실감으로부터 회복되어 일상생활에 적응하지만, 애도과정이 적절하지 않았거나 특수한 변수가 있는 경우 심리적인 고통이 경감되지 않거나 기능 손상이 지속되기도 한다(Bonanno et al., 2002). 애도의 증상과 기간이 문화적으로 정상적이라고 받아들여지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외상적 애도(Traumatic Grief) 혹은 복합애도(Complicated Grief) 등의 개념으로 설명되었다(장현아, 2009; 황선희, 2011; Stroebe et al., 2001). 정상적인 애도와 비정상적인 애도는 개념적으로 명확히 구별된다기보다는 관련 증상들이 병렬적으로 발생하거나 사라지기도 하며, 애도과정의 정상과 비정상 여부도 개인적 변인과 사회적 변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다만 자발적이고 자연스러운 회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기능 손상이 광범위하여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며 다른

정신장애와 구별되는 특성이 있다는 점에서, 복합애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정형수, 이지영, 김소연, 양은주 2014; 황선희, 2011). Prigerson 등(2009)은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 등 전문가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사별 후 부적응적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고 기능 손상이 심각한 경우를 지속애도장애(Prolonged Grief Disorder; PGD)라고 칭하였다. 지속애도장애(PGD)는 고인에 대한 갈망을 중심으로 '분리 고통'과 '인지, 정서, 행동적 증상들'이 6개월 이상 지속될 때 진단한다. 취약요인으로는 고인과의 애착이 강한 경우, 자살이나 갑작스러운 죽음처럼 사건이 외상적인 경우, 부모가 자녀를 잃은 경우, 사회적 지지자원이 부족한 경우 등이 있다(황선희, 2011; Burke, Neimeyer, & McDevitt-Murphy, 2010; Currier, Holland, & Neimeyer, 2006; Prigerson, 2004; Stroebe et al., 2001). 반려동물 상실에 있어서는 반려동물과의 관계가 각별했거나 다른 스트레스 요인이 있을 경우 고통의 정도와 역기능적 애도증상이 심각해질 수 있다(Hunt & Padilla, 2006; Wrobel & Dye, 2003).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한 서구 문화권에서는 사회학, 사회복지학, 수의학, 의학, 심리학 분야에서 반려동물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반려동물 상실 애도에 관한 연구도 20세기 중후반부터 이루어져왔다(모효정, 2015; 이현서, 2017; 정민지, 2019; Keddie, 1977; Quackenbush, 1985). 그에 비해 국내에서는 반려동물이 미치는 심리적 영향에 대한 연구가 주로 2010년대부터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그중 반려동물 애도에 관한 연구는 2010년대 중반 무렵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관련 연구가 아직은 제한적인 편이다.

선행연구에서는 반려동물과의 관계에서 강한 정서적 지지와 애착을 경험한 사람들의 경우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거나 자신을 반려동물의 양육자로 인식하기도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박주은, 2013; Cain, 1985). 인간이 반려동물과 형성하는 애착관계가 인간간 애착관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보니, 애착관계를 형성한 반려동물이 죽으면 중요한 타인을 상실한 것과 유사한 애도반응을 보이고, 반려동물에 대한 애착이 강할수록 심리적 어려움의 수준도 높아질 수 있다(모효정, 2015; 박주은, 2013; Brown, Richards, & Wilson, 1996; Wrobel & Dye, 2003). 반려동물 상실 후 반려인의 5~12%는 복합애도를 경험하였으며(Adrian, Deliramich, & Frueh, 2009), 애도반응은 평균 10개월간 지속되었고, 상실 후 1년이 경과하여도 22.4%의 반려인이 한 가지 이상의 애도반응을 경험했다고 하였다(Wrobel & Dye, 2003). 자녀가 없는 부부의 경우 반려동물 상실 시 자녀를 사별한 것과 비슷한 수준의 고통을 보고하였다(모효정, 2015; Katcher & Rosenberg, 1979; Wrobel & Dye, 2003).

한편, 상실로 인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며 압도적인 고통에서 회복하는 경험을 한 사람들은 상실을 경험하기 전보다 오히려 심리적인 성장을 이루기도 한다. 이때 적절한 애도과정은 이후의 회복과 적응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Neimeyer, 2016; Prigerson, 2004; Taku, Cann, Calhoun, & Tedeschi, 2008). 고통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를 Tedeschi와 Calhoun(1996)은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이라 정의하였다(송승훈, 2007). 이는 1) 자기지각의 변화(perceived changes in self: 외상 극복 과정을 통해 자신의 강점을 발견함), 2) 대인관계 변화(a changed

sense of relationships: 주변 사람들에게 친밀함을 전보다 더 느낌), 3) 인생관의 변화(a changed philosophy of life: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거나, 작은 것들에 감사하거나, 영적·종교적 성장을 경험함)의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Tedeschi & Calhoun, 1996). 최근에는 애도 후의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 과정에서도 반려동물 상실 애도와 일반적인 애도 간에 유사성이 나타난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즉 기존 사별 연구의 애도와 외상 후 성장에서 입증된 것처럼 반려동물 상실자들도 외상 후 성장의 경험을 보고했다는 것이다(Packman, Bussolari, Katz, Carmack, & Field, 2016).

이때 상실로 인한 고통이 심리적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상실 이전과 달라진 삶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인지과정이 필요하다(Prigerson, 2004; Shear & Shair, 2005; Steger, Frazier, Oishi, & Kaler, 2006).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한 후 오히려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심리적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김보라, 신희천, 2010; Park & Ai, 2006; Tedeschi & Calhoun, 2004). 상실로 인한 고통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삶의 질서를 회복하며 사건의 의미를 찾으려 노력하는 과정을 애도에 대한 의미재구성이라 한다. 이는 외상 사건으로 인해 변화된 의미와 사건 이전의 의미구조 간의 불일치를 조정하거나 통합하려는 노력으로서, 이해하기(sense making), 이익 찾기(benefit finding), 정체성 변화(identity change) 등을 포함한다(Gillies, 2005). 사별은 기존의 신념체계를 뒤흔드는 고통스러운 경험이지만, 애도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신념체계로의 변화가 이루어지기도 한다(신선영, 2009; Park, Cohen, & Murch, 1996). 이때 의미재구성은 외상 사건을 겪은 후의 심리적 성장과 적응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 중 하나로서, 의미를 발견하려는 시도가 성공적으로 이어질 때 심리적 적응에 이를 수 있다(최선재, 안현의, 2013; Gillies, 2005). 중요한 대상을 상실한 외상사건은 심리적인 고통을 유발하여 기존의 의미구조에 혼란을 가져오지만, 상실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이전에 없었던 심리적 유익(benefit)이 발생되어 사건 이전보다 오히려 더 심리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어 의미와 성장 간에 정적 관계가 발생한다(조명숙, 2012; 최선재, 안현의, 2013). 요약하면 선행연구들은 애도로 인한 증상이 심각할수록 의미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애도와 의미재구성 간의 부적 관련성을 뒷받침한다. 이와 더불어, 이 과정에서 의미재구성에 성공할수록 새로운 적응적 신념체계로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재구성과 심리적 성장 간의 정적 관련성도 뒷받침함을 알 수 있다.

애도는 개인적인 경험인 동시에 개인이 속한 사회의 관습, 문화에 영향 받는 사회적 경험으로서, 상실 후 가까운 타인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상실의 주관적인 의미를 공유하거나 재조정하는 과정이 중요하다(Neimeyer, Prigerson, & Davies, 2002). 심리적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건으로 인한 감정을 숨기는 것보다 타인에게 개방하고 적절한 반응을 접하는 것이 회복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오현자, 김교헌, 2009; Pennebaker, 1997). 사회적 반응에는 긍정적 반응과 부정적 반응이 있으며, 긍정적 반응에는 위로나 공감 같은 정서적 지지, 도움 되는 정보 제공 등이, 부정적 반응에는 당사자 비난이나 비수용, 낙인찍기 등이 있다. 외상 경험을 타인에게 개방했을 때 부정적 반응을 받으면 자기비난이 증가하고 사건에 관한 감정을 회피, 억압하게 만들어 심

리적 적응을 방해한다(Ullman, 2000). 반려동물 상실을 인간과의 사별과 비교하여 폄하하거나 부정적 반응을 보낼 경우 당사자가 경험하는 심리적 고통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Toray, 2004), 사회적인 인식이나 관습의 합의가 부족한 반려동물 상실 애도의 경우 반려인이 받는 사회적 반응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반려동물 상실 애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성으로 Cordaro(2012)는 박탈된 애도(Disenfranchised Grief)를 꼽았다. 이는 '상실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공개적으로 애도하지 못하거나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애도'를 뜻한다(Doka, 1999). 반려동물 상실 시 반려인의 심리적 고통이 관습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사회적 지지가 부족할 수 있고 반려동물 애도과정 자체가 과소평가되는 애도 박탈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정민지, 2019; Cordaro, 2012; Packman et al., 2016; Wrobel & Dye, 2003). 자신의 애도반응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접하거나 예상할 경우 반려인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여 경험을 개방하지 않거나, 감정을 억압, 축소하며 부적절감, 수치감을 느끼거나, 타인의 비수용적 반응에 대해 서운함, 분노를 느낄 수 있다(모효정, 2015; 박주은, 2013; Harris, 2002; Toray, 2004). 이는 상실 후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며, 심리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가까운 타인이나 전문가의 조력도 구하지 않게 할 수 있다(Cordaro, 2012; Packman et al., 2016; O. Rujoiu & Rujoiu, 2014).

반면 정서적 지지와 같은 긍정적 사회적 반응은 부정적 정서를 완화시키고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며 인지적 처리에 영향을 끼쳐 외상 후 성장에 정적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꼽힌다(신선영, 2009; 오현자, 김교헌, 2009; Tedeschi & Calhoun, 2004; Park et al., 1996; Weiss, 2002). 인간은 고통스러운 경험을 개방했을 때 긍정적 사회적 반응을 받을수록 부정적 감정이 완화될 뿐만 아니라, 그 경험에 대해 숙고하고 재평가하며 사건의 새로운 의미나 유익을 찾아보거나 적극적인 문제해결행동을 추구하는 등, 적응적인 인지적 대처과정이 활성화될 수 있다(신선영, 2009; 유희정, 2012; Ellis, Nixon, & Williamson, 2009). 애도는 개인적 과정이면서 사회적 경험이기도 하므로, 애도에 대해 의미를 재구성하여 적응과 성장에 이르는 인지적 과정도 주변사람들의 반응에 의해 영향받을 수 있다(Neimeyer, 2001; Neimeyer, Klass, & Dennis, 2014). 따라서 사회적 비수용이나 지지 부족이 예상되는 반려동물 상실 애도의 경우, 의미재구성을 통해 성장과 적응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 사회문화적 요소 및 사회적 반응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인간 사별 연구에서 확인된 애도와 외상 후 성장의 관계 및 관련 변인들의 관계를 반려동물 상실자의 심리적 과정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구체적으로, 반려동물을 죽음으로 상실하고 애도한 후 심리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정도가 애도에 대한 의미재구성의 수준에 영향 받을 때, 상실자가 접하는 긍정적 사회적 반응의 정도가 이후의 심리적 성장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가정하였다. 이에 반려동물 상실로 인한 애도, 애도에 대한 의미재구성, 애도 경험 개방에 대한 긍정적 사회적 반응, 외상 후 성장을 주요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반려동물 상실 애도와 심리적 성장의 관계를 의미재구성이 매개하고, 이러한 매개효과가 긍정적 사회적 반응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 상실

후 심각한 애도반응이 지속되는 사람들에 대한 심리적 지원에서 고려할 점과 긍정적 사회적 반응의 기제를 살펴보았다. 애도에 따른 증상들을 설명하는 개념들에는 복합애도(Complicated Grief)와 지속애도(Prolonged Grief)가 있으나 두 개념들은 핵심내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으며, 1990년대부터 쓰이던 복합애도 개념이 2009년도에 지속애도장애(PGD)라는 명칭으로 확정되어 애도 관련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참조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속애도 개념을 활용하였다(황선희, 2011; Prigerson et al., 2009). 한편, 국내에서 Hunt와 Padilla(2006)의 반려동물애도척도(Pet Bereavement Questionnaire; PBQ)가 번안된 바 있으나(정민지, 2019), 본 연구에서는 상실 후 애도증상의 심각성과 지속성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기 위하여 지속애도척도(Prolonged Grief Disorder Scale; PG-13)를 선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반려동물 상실로 인한 애도가 심리적 성장을 예측하는가? 둘째, 반려동물 상실로 인한 애도와 심리적 성장의 관계를 애도에 대한 의미재구성이 매개하는가? 셋째, 애도에 대한 의미재구성과 심리적 성장의 관계를 긍정적 사회적 반응이 조절하는가? 넷째, 반려동물 상실로 인한 지속애도가 의미재구성을 매개로 심리적 성장에 이르는 경로에 의미재구성과 긍정적 사회적 반응의 상호작용이 영향을 미치는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는가?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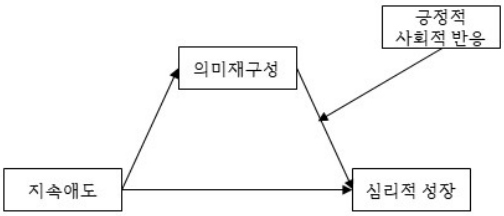

그림 1. 조절된 매개효과 연구모형

방 법

연구대상

반려동물을 죽음으로 상실한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만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수집한 369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상실 후 6개월 이상을 기준으로 설정한 것은, 본 연구에서 반려동물 상실로 인한 애도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선택한 지속애도 진단 기준 중에 '사별 후 기간이 6개월이 지나야 한다'는 기간에 대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였기 때문이다. 참여자의 연령 범위는 20세~65세, 반려동물 상실 후 경과기간은 평균 3.24년(표준편차 4.22년)이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상실과 관련된 정보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측정도구

지속애도척도(Prolonged Grief Disorder Scale; PG-13)

Prigerson 등(2009)이 개발하고 강현숙과 이동훈(2017)이 타당화한 단일 차원 13문항의 척도이다. '분리 고통'을 묻는 2문항과 '인지, 정서, 행동적 증상'을 묻는 9문항을 포함한 11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기간 조건과 사회적 기능 손상 여부를 묻는 2문항은 범주형(예, 아니오)으로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반려동물 상실의 맥락에 맞게 문장을 일부 수정하여 사

표 1.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반려동물 상실 관련 정보 (*N*=369)

구분		사례 수(명)	백분율(%)
성별	남성	78	21.1
	여성	291	78.9
연령대	20대	119	32.2
	30대	177	48.0
	40대	55	14.9
	50대	16	4.3
	60대	2	0.5
학력	고졸 이하	33	9.0
	대졸	212	57.5
	대학원졸	124	33.6
결혼 여부	미혼	219	59.3
	기혼	138	37.4
	이혼	10	2.7
	사별	2	0.5
자녀	있음	111	30.1
	없음	258	69.9
거주 형태	1인 가구	92	24.9
	가족과 거주	269	72.9
	가족 외 동거인과 거주	8	2.2
반려동물의 종류	개	312	84.6
	고양이	57	15.4
반려동물 상실 원인	노화	141	38.2
	만성질환	62	16.8
	급성질환	96	26.0
	사고	70	19.0
반려동물 상실 예상 여부	예상하였음	150	40.7
	갑작스러웠음	219	59.3
상실 당시 반려동물 나이	12개월 미만	7	1.9
	1년 이상~5년 미만	69	18.7
	5년 이상~10년 미만	132	35.8
	10년 이상~15년 미만	118	32.0
	15년 이상	43	11.7
상실한 동물을 반려한 기간	1년 미만	13	3.5
	1년 이상~5년 미만	82	22.2
	5년 이상~10년 미만	139	37.7
	10년 이상~15년 미만	103	27.9
	15년 이상	32	8.7
상실 후 현재까지 경과한 기간	6개월 이상~1년 미만	51	13.8
	1년 이상~2년 미만	105	28.5
	2년 이상~5년 미만	137	37.1
	5년 이상~10년 미만	44	11.9
	10년 이상	32	8.7

용하였다. Prigerson 등(2009)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2, 강현숙과 이동훈(2017)의 연구에서는 .91, 본 연구에서는 .88이었다.

애도에 대한 의미재구성 척도(Grief and Meaning Reconstruction Inventory; GMRI)

Gillies(2005)이 사별한 후의 의미재구성 과정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하였으며 최선재와 안현의(2013)가 번안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총 29문항으로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며 '유대감의 지속', '개인적 성장', '평화로운 느낌', '공허함 및 무의미함', '인생에의 가치부여'의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Gillies(2005)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4였으며, 최선재와 안현의(2013)의 연구에서는 .70, 본 연구에서의 전체 내적 합치도는 .81로 나타났다.

외상경험 개방에 대한 사회적 반응 척도(Social Reactions Questionnaire; SRQ)

외상경험을 타인에게 이야기하였을 때 받는 긍정적 및 부정적 사회적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Ullman(2000)이 개발하고 심기선과 안현의(2014)가 타당화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다. 긍정적 사회적 반응과 부정적 사회적 반응의 2가지 상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긍정적 사회적 반응은 '정서적 지지'와 '실질적 도움'의 2가지 하위요인, 부정적 사회적 반응은 '낙인찍기', '방해하기', '통제하기', '피해자 비난', '자기중심적 반응'의 5가지 하위요인이 있다. 원 저자의 연구에서 하위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77～.93, 심기선과 안현의(2014)의 연구에서는 .76～.96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사회적 반응의 '정서적 지지'와 '실질적 도움' 하위요인을 사용하였으며 두 하위요인의 내적 합치도는 .92였다.

외상 후 성장 척도(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PTGI)

외상을 경험한 후의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에 대한 개인의 지각을 측정하기 위하여 Tedeschi와 Calhoun(1996)이 개발하고 송승훈(2007)이 타당화하였다. 6점 리커트 척도로 Tedeschi와 Calhoun(1996)의 연구에서는 총 21문항에 5개 하위요인, 송승훈(2007)의 한국판 외상 후 성장 척도(K-PTGI)는 총 16문항에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요인에는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 '대인관계 의미변화', '자기 지각의 변화', '영적 관심의 변화'가 있다. 원 저자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0, 송승훈의 연구(2007)에서 K-PTGI 16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91, 본 연구에서는 .92로 나타났다.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3.0과 SPSS PROCESS Macro 3.4.1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의 일반적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항내적합치도(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주요 변인의 일반적 경향성과 정규분포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각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PROCESS Macro의 model 4를 활용하고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5,000회의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을 실시하여 확인하였다. 여섯째,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PROCESS Macro를 사용하고 조절효과 양상은 단순 기울기 분석(Simple Slope Analysis)으로 확인하였다. 일곱째,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PROCESS Macro model 14를 활용하고 5,000회의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여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으며, Johnson-Neyman 방법을 사용하여 조절변인의 수준에 따른 매개효과의 크기를 살펴보았다(Preacher & Hayes, 2008).

결 과

기술통계

자료의 일반적 경향성과 정규성 여부 확인을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왜도, 첨도를 산출하여 표 2에 제시하였다. 왜도의 범위는 -1.09~ .31, 첨도 범위는 -.84~2.69로 나타났는데, Kline(2015)은 왜도의 절대값이 3 미만, 첨도의 절대값이 10 미만일 때 정규성 가정을 충족한다고 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 모든 변인이 정규분포함을 확인하였다.

주요 변인 상관분석

주요 변인의 상관을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속

표 2.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N*=369)

변인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왜도	첨도
지속애도	2.33	.65	1.15	3.92	.18	-.81
애도에 대한 의미재구성	3.50	.39	2.00	4.86	.31	.77
유대감의 지속	3.90	.56	2.00	5.00	-.16	-.39
개인적 성장	3.53	.57	1.43	5.00	-.27	.87
평화로운 느낌	3.16	.69	1.40	5.00	-.07	.10
공허함 및 무의미함	3.18	.81	1.00	5.00	.05	-.45
인생에의 가치 부여	3.64	.57	1.75	5.00	.02	.34
긍정적 사회적 반응	2.47	.59	.21	3.95	-.53	.84
정서적 지지	2.74	.65	.27	4.00	-.45	.57
실질적 도움	1.49	.87	.00	4.00	.05	-.55
외상 후 성장	2.96	.78	.00	5.00	-1.09	2.69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	2.96	.92	.00	5.00	-.77	1.12
대인관계 의미변화	3.02	.94	.00	5.00	-.86	1.20
자기 지각의 변화	3.15	.82	.00	5.00	-1.09	2.52
영적 관심의 변화	2.25	1.26	.00	5.00	-.06	-.84

애도는 의미재구성(r=-.22, p<.001)과 부적 상관이 있고, 외상 후 성장(r=.28, p<.001)과는 정적 상관이 있으며, 긍정적 사회적 반응과는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애도에 대한 의미재구성은 긍정적 사회적 반응(r=.44, p<.001), 외상 후 성장(r=.39, p<.001)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사회적 반응은 외상 후 성장(r=.41, p<.001)과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의미재구성의 매개효과

의미재구성이 지속애도와 외상 후 성장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의 model 4(Hayes, 2013)를 통해 검증하였고 검증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독립변인인 지속애도가 매개변인인 의미재구성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고(B=-.13, p<.001), 독립변인인 지속애도가 종속변인인 외상 후 성장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으며(B=.34, p<.001), 지속애도(B=.47, p<.001)와 의미재구성(B=.97, p<.001)이 모두 외상 후 성장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여, 의미재구성이 지속애도와 외상 후 성장 간의 관계를 부분매개함을 확인하였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5,000회의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부트스트래핑 검정에서 신뢰구간의 하한값(LL)과 상한값(UL)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으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Preacher & Hayes, 2004) 본 연구에서 산출된 95% 신뢰구간 범위에서 구간 내에 모두 0을 포함하지 않아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이때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부호가 반대로 나타나고 총효과와 직접효과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면서 총효과보다 직접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우 변인 간 억제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를 '비일관적 매개효과 모형(Inconsistent mediational effect)'라 정의한다. 비일관적 매개효과 모형의 유형 중 이론적 배경에 근거한 연구 가설에 따라 억제효과가 발생한 경우를 '이론적 비일관적 매개모형'으로 분류한다(김하형, 김수영, 2020). 본 연구에서 상실로 인한 애도반응이 심각할수록 의미재구성을 방해하여 지속애도와 의미재구성의 부적 관계가 나타나지만, 그럴수록 의미재구성에 대한 내적 동기가 높아지고 인지전략이 활성화되어 적응에 정적 영향을 끼치는 의미재구성과 외상 후 성장의 정적 관계가 나타나, 의미재구성 변인

표 3. 지속애도와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의미재구성의 매개효과

	B	SE	t	95% CI	
				LL	*UL*
지속애도→의미재구성	-.13	.03	-4.39***	-.19	-.07
지속애도→외상 후 성장	.34	.06	5.67***	.22	.46
지속애도→외상 후 성장	.47	.05	8.72***	.36	.58
의미재구성→외상 후 성장	.97	.09	10.72***	.79	1.15

주. ***p<.001

의 양가적 특성 및 연구 가설과 일치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Gillies, 2005).

긍정적 사회적 반응의 조절효과

의미재구성과 외상 후 성장 간의 관계를 긍정적 사회적 반응이 조절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SPSS PROCESS Macro의 model 1을 활용하여 검증하고 분석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독립변인인 의미재구성(B=.54, p<.001)과 조절변인인 긍정적 사회적 반응(B=.38, p<.001)은 외상 후 성장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으며, 의미재구성과 긍정적 사회적 반응의 상호작용항(B=-.31, p<.05)도 유의미하게 나타나, 의미재구성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를 긍정적 사회적 반응이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효과 양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 기울기 분석(Simple Slope Test)을 실시하고(Aiken & West, 1991) 조절효과에 대한 회귀식 그래프 결과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긍정적 사회적 반응이 낮을 때의 의미재구성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 사회적 반응이 높을 때의 의미재구성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긍정적 사회적 반응이 높고 의미재구성이 낮을 때의 외상 후 성장은, 긍정적 사회적 반응이 낮고 의미재구성이 높을 때의 외상 후 성장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의미재구성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긍정적 사회적 반응의 조절효과

	B	SE	t	95% CI		F	R^2
				LL	UL		
의미재구성	.54	.10	5.25***	.34	.74		
긍정적 사회적 반응	.38	.07	5.68***	.25	.51	37.91***	.24
의미재구성 × 긍정적 사회적 반응	-.31	.13	-2.41*	-.56	-.06		

주. *p<.05,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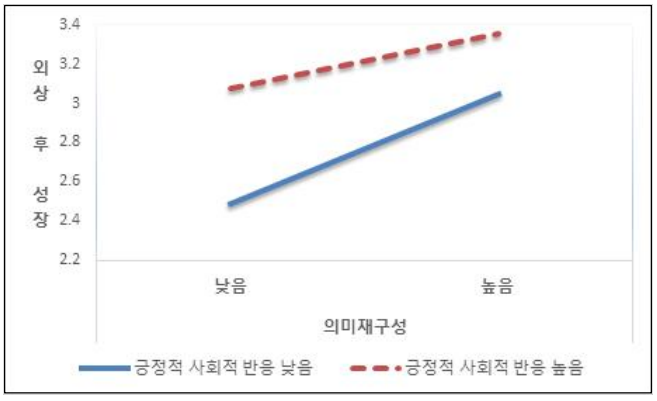

그림 2. 의미재구성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긍정적 사회적 반응의 조절효과

의미재구성과 긍정적 사회적 반응의 조절된 매개효과

조절된 매개(moderated mediation)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거쳐 종속변인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조절변인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Preacher & Hayes, 2008). 긍정적 사회적 반응의 수준에 따른 간접효과의 크기와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PROCESS Macro의 model 14를 활용하고 부트스트래핑 기법을 활용하여 5,000개의 표본을 재추출한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조절된 매개 모형에서 긍정적 사회적 반응의 조절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B=-.25, p<.05). 긍정적 사회적 반응의 평균과 ±1 표준편차의 3개 지점에서 지속애도가 의미재구성을 매개로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크기와 유의미성을 확인한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긍정적 사회적 반응 수준의 모든 지점에서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절변인의 수준별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의 크기는 긍정적 사회적 반응이 낮을 때 가장 높고, 긍정적 사회적 반응이 높아질수록 매개효과가 작아지는

표 5.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결과

	B	SE	t	95% CI	
				LL	*UL*
지속애도→의미재구성	-.13	.03	-4.39***	-.19	-.07
	R^2=.05, F=19.27***				
지속애도→외상 후 성장	.42	.05	7.98***	.32	.52
의미재구성→외상 후 성장	.75	.10	7.61***	.56	.95
긍정적 사회적 반응→외상 후 성장	.30	.06	4.80***	.18	.43
의미재구성×긍정적 사회적 반응→외상 후 성장	-.25	.12	-2.11*	-.49	-.02
	R^2=.35, F=49.21***				

주. *p<.05, ***p<.001

표 6. 긍정적 사회적 반응 수준별 의미재구성의 매개효과

조절변인	수준	조절변인의 특정 값에서의 의미재구성의 매개효과			
		Effect	SE	LLCI	ULCI
긍정적 사회적 반응	-1 SD	-.12	.03	-.19	-.06
	Mean	-.10	.03	-.16	-.05
	+1 SD	-.08	.03	-.14	-.04

LLCI: 간접효과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값
ULCI: 간접효과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상한값

것으로 확인되었다.

매개효과 유의성이 바뀌는 지점을 탐색하기 위하여 Johnson-Neyman 방법(Karpman, 1983)을 활용하여 매개효과의 신뢰구간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그림 3에 제시하였다. 조절변인 수준에 따라 신뢰구간을 추정하여 95% 상한 및 하한 지점의 신뢰구간 내에 0을 포함하면 해당 지점에서는 매개효과가 사라짐을 의미한다(Hayes & Matthes, 2009). 확인 결과 긍정적 사회적 반응이 낮은 수준에서는 95% 하한과 95% 상한 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지만 긍정적 사회적 반응이 1.45인 지점에서는 95% 하한과 95% 상한 구간에 0을 포함하였다. 즉 긍정적 사회적 반응이 매우 낮은 -2.26부터 비교적 높은 +1.45 미만 지점까지는 매개효과가 유의하지만, 긍정적 사회적 반응이 이보다 더 높은 수준부터는 매개효과가 사라졌다. 즉 지속애도가 의미재구성을 거쳐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매개효과가 긍정적 사회적 반응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반려동물 상실 경험이 있는 성인의 애도반응이 심리적 성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 애도와 성장의 관계에서 의미재구성의 매개효과와 긍정적 사회적 반응의 조절효과, 그리고 이를 통합적으로 검증한 조절된 매개효과 양상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응답자 369명 중 31명(8.4%)이 지속애도장애 진단 기준(강현숙, 이동훈, 2017; Prigerson et al., 2009)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반려인들의 5~12%가 복합애도를 경험하였고 애도기간이 평균 10개월 지속되었다는 선행연구의 경험적 결과들과도 부합한다(Adrian et al., 2009; Wrobel & Dye, 2003). 즉 반려동물 상실을 겪은 반려인 중 일부는 높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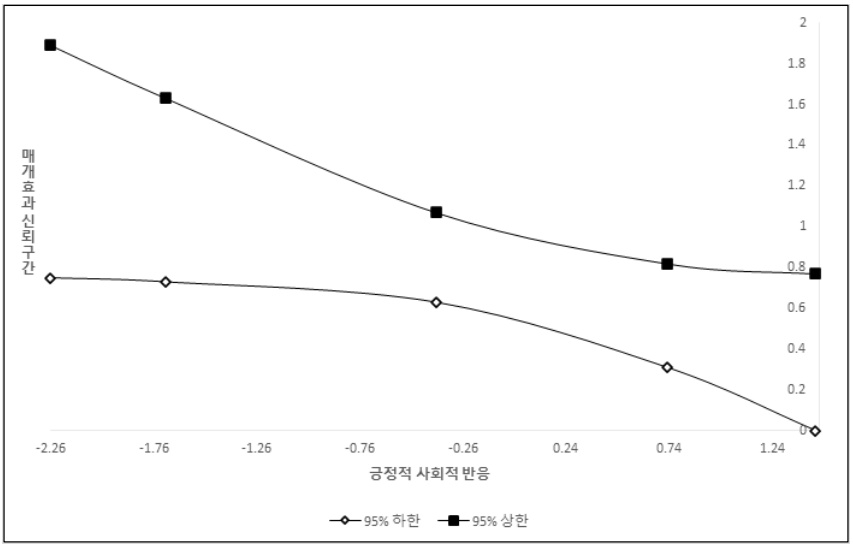

그림 3. 긍정적 사회적 반응 수준별 의미재구성의 매개효과 신뢰구간

수준의 지속애도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상관관계 분석 결과 지속애도는 의미재구성과 유의한 부적 상관, 심리적 성장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애도에 대한 의미재구성은 심리적 성장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충격적인 상실 경험은 개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의미구조에 균열을 가져오나, 충분한 애도과정은 심리적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고통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를 경험한다는 애도와 외상 후 성장의 선행연구를 지지한다(최선재, 안현의, 2013; Neimeyer, 2016; Prigerson, 2004; Tedeschi & Calhoun, 1996). 또한 상실로 인한 역경의 상황에서 그 경험에 대한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인지적 대처전략을 통해 사건의 의미구조를 재해석함으로써 더 나은 심리적 적응을 하게 된다는, 의미재구성과 심리적 성장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들과도 일치한다(조명숙, 2012; Gillies, 2005). 의미재구성은 긍정적 사회적 반응과 정적 상관이 나타났는데, 이는 긍정적인 반응이 외상 경험자들의 적응적 사고를 활성화시킨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한다(심기선, 안현의, 2014). 긍정적 사회적 반응은 심리적 성장과 정적 상관이 나타나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끼친다는 선행연구의 근거와 부합한다(신선영, 2009; 심기선, 안현의, 2014; Ullman, 2000).

셋째, 애도와 심리적 성장의 관계에서 애도에 대한 의미재구성의 부분매개효과가 존재하였다. 상실 경험은 기존의 의미구조를 뒤흔든다는 점에서 애도가 의미 생성을 방해하지만 의미 생성이 어려울수록 역설적으로 그 사건의 의미를 재구성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가 높아지고 인지적 전략을 활성화시킨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의미구조가 형성되면서 심리적 성장을 야기한다(송승훈, 2007; 최선재, 안현의, 2013; Gillies, 2005; Park & Ai, 2006; Prigerson, 2004; Taku et al., 2008; Tedeschi & Calhoun, 2004; Worden, 2009).

넷째, 애도에 대한 의미재구성과 심리적 성장의 관계를 긍정적 사회적 반응이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사회적 반응이 낮을 때 의미재구성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 사회적 반응이 높을 때 의미재구성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단, 긍정적 사회적 반응이 낮고 의미재구성이 높을 때의 성장 수준보다, 긍정적 사회적 반응이 높고 의미재구성이 낮을 때의 성장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주변 사람들로부터 긍정적 사회적 반응을 적게 받는 상황이라면 의미를 재구성하는 인지처리과정이 활성화되는 것이 심리적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긍정적 반응을 많이 받는다면 의미생성의 노력을 적게 하고도 회복에 이를 수 있으며 비록 의미재구성의 작용은 줄더라도 적응 수준은 더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애도가 의미재구성을 경유하여 심리적 성장에 이르는 경로에서 긍정적 사회적 반응이 매개효과를 조절하는 조절된 매개효과가 존재하였다. 이때 긍정적 사회적 반응이 낮을 때 매개효과가 크고 긍정적 사회적 반응이 높아질수록 매개효과는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에는 별도로 기술하지 않았으나, 본 연구의 설문 중 반려동물 상실 후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점을 자유롭게 서술하도록 한 주관식 문항에서 29.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응답은 가족이나 친구의 위로, 공감, 대화 같은 지지적 반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상담장면에서의 치료적 개입에 적용하면, 반려동물 상실 후 고통을 호소하는 내담자로 하여금 반려동물의 삶과 죽음으로부터 자신의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조력하되, 그 과정에서 수용과 타당화 등 긍정적 반응을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심리적 회복과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가 남성(21.1%)보다 여성(78.9%)의 비율이 높고 전체 연령대 중 20대와 30대의 비율(80.2%)이 높은 점, 응답자들 개개인의 반려동물에 대한 애착수준, 가치관, 개인적 심리적 특성 등의 변인들을 통제하고 측정하지 않은 점은 본 연구의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제한점이 될 수 있다. 둘째,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통하여 자료가 수집되었고, 사후 기간별 심리적 변화 양상을 살펴본 것이 아니라 반려동물 사후 기간이 다양한 응답자들의 회상에 의존했다는 점에서 반응 편향이나 기억 회상의 오류가 있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다양한 방식의 탐색적 연구 및 종단 연구를 활용하여 국내 반려동물 상실자들의 애도경험의 과정과 특성을 살펴보고, 반려인들에게 도움 되는 긍정적 사회적 반응의 종류 및 애도 후 심리적 성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반려동물과 관련된 척도들의 타당화 연구를 통해 인간 사별과 구별되는 반려동물 상실 애도의 특징을 좀 더 정교하게 분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를 제안한다.

위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 사별경험에서의 애도와 외상 후 성장, 애도에 대한 의미재구성 과정이 반려동물 상실경험에도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반려동물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도 지속애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급변하고 있는 반려동물 문화 속에서 국내 반려인들의 내적 경험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지지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조절변인으로서의 긍정적 사회적 반응의 수준에 따른 매개효과의 양상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상담현장에서 반려동물 애도상담을 전문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상담자들은 반려동물 상실을 겪은 내담자들이 자신의 슬픔을 주변으로부터 이해받지 못하기도 하고, 유난스럽거나 병적인 사람이라는 등의 부정적 평가를 접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은 때로 '그냥 개 하나 죽은 것뿐이다', '새로운 개를 구하면 된다'와 같은 부적절한 위로를 접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종류의 적절하지 못한 지지는 오히려 상실감이나 고립감을 증폭시킬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Toray, 2004).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긍정적 사회적 반응의 척도 문항들인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주었다.', '내 감정에 귀 기울여 주었다.', '아무런 가치판단 없이 내 편이 되어주었다.'와 같은 수용적이고 비판단적인 반응들을 반려동물 상실자들의 주관적 경험에 세심하게 조율하여 제공함으로써, 부정적 반추를 감소시키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즉, 공감과 수용, 비판단과 같은 상담의 기본적인 태도뿐만 아니라, 반려인들이 접하는 특수한 경험과 환경에 대한 민감하고 전문적인 이해가 요구된다. 아울러, 특별한 관계였던 반려동물을 상실한 경우 중요한 인간 대상을 사별했을 때와 유사한 수준의 심리적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을, 반려인들의 심리적 고통을 타당화하는 심리교육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

을 것이다. 실제로 반려동물 애도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온 서구권 국가들에서는 심리상담 전문가에 의해 반려동물 애도자를 지원하기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지역사회에서 온라인 혹은 대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를 찾을 수 있다(모효정, 2015). 이제까지 국내에서는 반려동물 애도에 대해 사회적 인식 부족과 더불어 심리치료적 지원체계도 다소 미흡한 편이었다. 앞으로는 반려동물 상실을 경험한 내담자를 조력하는데 있어 상실감, 죄책감, 위축감, 고립감 등의 부정적 정서를 완화시키고 심리적 성장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개인의 경험에 대한 타당화 및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개인상담 및 자조집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절한 긍정적 사회적 반응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현숙, 이동훈 (2017). 한국판 지속비애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4), 1027-1052.

김보라, 신희천 (2010). 자아탄력성과 삶의 의미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1), 117-136.

김세영, 박형인 (2018). 반려동물이 지지추구적 정서조절을 통해 행복에 미치는 효과: 마음챙김에 의해 조절된 매개모형.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3(4), 1001-1018.

김하형, 김수영 (2020). 비일관적 매개효과 모형의 해석 방향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9(1), 91-115.

농림축산식품부 (2020). 전국 591만 가구에서 반려동물 856만 마리 키운다: 2019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발표. 4월 28일. 세종: 농림축산식품부. 미간행.

모효정 (2015). 반려동물의 상실로 인한 슬픔, 펫로스(Pet Loss) 증후군의 증상과 대처. 인간・환경・미래, 15, 91-120.

박주은 (2013). 여성의 반려견 죽음에 대한 경험.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송승훈 (2007). 한국판 외상 후 성장 척도(K-PTGI)의 신뢰도와 타당도.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신선영 (2009). 삶의 의미와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심기선, 안현의 (2014). 한국판 외상경험 개방에 대한 사회적 반응 척도(K-SRQ) 타당화. 한국 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2), 271-298.

오현자, 김교헌 (2009). 가출청소년의 외상경험에 대한 자기노출이 부적 정서와 침입 경험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 89-106.

유희정 (2012).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현서 (2017). 중년여성들의 노화 반려견 상실 경험. 백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장현아 (2009). 복합 비애(Complicated Grief)의 개념과 진단.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2), 303-317.

정민지 (2019). 성인의 반려동물 상실 경험과 복합비애.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형수, 이지영, 김소연, 양은주 (2014). 한국 성인의 사별에 의한 복합비애경험 개념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3(1), 81-107.

조명숙 (2012). 외상적 사별 경험에 따른 병적 애도 증상에서 의미만들기와 사건중심성의 효과.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선재, 안현의 (2013). 상실 경험의 의미 재구성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 상담학연구, 14(1), 323-341.

황선희 (2011). 사별에 따른 지속된 비애 증상과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에서 부정적 인지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Adrian, J. A. L., Deliramich, A. N., & Frueh, B. C. (2009). Complicated grief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humans' response to the death of pets/animals. *Bulletin of the Menninger Clinic, 73*(3), 176-187.

Aiken, L. S., & West. S. G.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CA: Sage.

Amiot, C. E., & Bastian, B. (2015). Toward a psychology of human-animal relations. *Psychological Bulletin, 141*(1), 6-47.

Bonanno, G. A., Wortman, C. B., Lehman, D. R., Tweed, R. G., Haring, M., Sonnega, J., Carr, D., & Nesse, R. M. (2002). Resilience to loss and chronic grief: A prospective study from preloss to 18-months postlo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5), 1150-1164.

Brown, B. H., Richards, H. C., & Wilson, C. A. (1996). Pet bonding and pet bereavement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4*(5), 505-509.

Burke, L. A., Neimeyer, R. A., & McDevitt-Murphy, M. (2010). African American homicide bereavement: Aspects of social support that predict complicated grief, PTSD, and depression. *Omega: Journal of Death & Dying, 61*(1), 1-24.

Cain, A. O. (1985). Pets as family members. *Marriage and Family Review, 8*(3/4), 5-10.

Cordaro, M. (2012). Pet loss and disenfranchised grief: Implications for mental health counseling practice.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34*(4), 283-294.

Currier, J. M., Holland, J. M., & Neimeyer, R. A. (2006). Sense-making, grief, and the experience of violent loss: Toward a meditational model. *Death Studies, 30*(5), 403-428.

Doka, K. J. (1999). Disenfranchised grief. *Bereavement Care, 18*(3), 37-39.

Ellis, A. A., Nixon, R. D., & Williamson, P. (2009).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negative appraisals on acute stress symptoms and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8*(4), 347-361.

Field, N., Orsini, L., Gavish, R., & Packman, W. (2009). Role of attachment in response to pet loss. *Death Studies, 33*(4), 334-355.

Gillies, J. M. (2005). *Meaning reconstruction in response to bereavement: Constructing a measure*. The University of Memphis.

Harris, J. A. (2002). *Pet loss: A spiritual guide*. New York: Lantern Books.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Guilford Press.

Hayes, A. F., & Matthes, J. (2009). Computational procedures for probing interactions in OLS

and logistic regression: SPSS and SAS implementations. *Behavior Research Methods, 41*(3), 924-936.

Hunt, M., & Padilla, Y. (2006). Development of the Pet Bereavement Questionnaire. *Anthrozoös, 19*(4), 308-324.

Karpman, M. B. (1983). The Johnson-Neyman technique using SPSS or BMDP.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43*(1), 137-147.

Katcher, A. H., & Rosenberg, M. A. (1979). Euthanasia and the management of the client's grief. *Compendium on Continuing Education, 1*(12), 887-90.

Keddie, K. M. G. (1977). Pathological mourning after the death of a domestic pet.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31*(1), 21-25.

Kellehear, A. & Fook, J. (1997). Lassie come home: A study of 'loss pet' notices. *Omega, 34*(3), 191-202.

Kenneth, B. (2006). Pastoral concern in relation to the psychological stress caused by the death of an animal companion. *Mental Health, Religion & Culture, 9*(5), 411-422.

Kline, R. B. (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Y: Guilford Publications.

Kurdek, L. A. (2009). Pet dogs as attachment figures for adult owner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3*(4), 439-446.

Neimeyer, R. A. (2001). *Meaning reconstruction and the experience of los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Neimeyer, R. A. (2016). Meaning reconstruction in the wake of loss. *Behaviour Change, 33*(2), 65-79.

Neimeyer, R. A., Klass, D., & Dennis, M. R. (2014). A social constructionist account of grief: Loss and the narration of meaning. *Death Studies, 38*(8), 485-498.

Neimeyer, R. A., Prigerson, H. G., & Davies, B. (2002). Mourning and meaning.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6*(2), 235-251.

Packman, W., Bussolari, C., Katz, R., Carmack, B. J., & Field, N. P. (2016). Posttraumatic growth following the loss of a pet. *Omega: Journal of Death & Dying, 75*(4), 337-359.

Park, C. L., & Ai, A. L. (2006). Meaning making and growth: New directions for research on survivors of trauma. *Journal of Loss and Trauma, 11*(5), 389-407.

Park, C. L., Cohen, L. H., & Murch, R. L. (1996). Assessment and prediction of stress-related growth. *Journal of Personality*, *64*(1), 71-105.

Pennebaker, J. W. (1997). Writing about emotional experiences as a therapeutic process. *Psychological Science, 8*(3), 162-166.

Preacher, K. J., & Hayes, A. F. (2004). SPSS and SAS procedures for estimating indirect effects in simple mediation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Instruments, & Computers, 36*(4), 717-731.

Preacher, K. J., & Hayes, A. F. (2008). A symptotic and resampling strategies for assessing and comparing indirect effects in multiple mediator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40*(3), 879-891.

Prigerson, H. G. (2004). Complicated grief: When the path of adjustment leads to a dead-end. *Bereavement Care, 23*(3), 38-40.

Prigerson, H. G., Horowitz, M. J., Jacobs, S. C., Parkes, C. M., Aslan, M., Goodkin, K., & Maciejewski, P. K. (2009). Prolonged grief disorder: Psychometric validation of criteria proposed for DSM-V and ICD-11. *PLoS Medicine, 6*(8), 1-12.

Quackenbush, J. E. (1985). The death of a pet. How it can affect owners. *The Veterinary Clinics of North America. Small Animal Practice, 15*(2), 395-402.

Rujoiu, O., & Rujoiu, V. (2014). Pet loss and human emotion: Romanian students' reflections on pet loss, *Journal of Loss and Trauma, 19*(5), 474-483.

Shear, K., & Shair, H. (2005). Attachment, loss, and complicated grief. *Developmental Psychobiology: The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Developmental Psychobiology, 47*(3), 253-267.

Steger, M. F., Frazier, P., Oishi, S., & Kaler, M. (2006). The 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Assessing the presence of and search for meaning in lif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1), 80-93.

Stroebe, M. S., Hansson, R. O., Stroebe, W. E., & Schut, H. E. (2001). *Handbook of bereavement research: Consequences, coping, and care.*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aku, K., Cann, A., Calhoun, L. G., & Tedeschi, R. G. (2008). The factor structure of the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A comparison of five models using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21*(2), 158-164.

Tedeschi, R. G., & Calhoun, L. G. (1996). The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Measuring the positive legacy of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9*(3), 455-471.

Tedeschi, R. G., & Calhoun, L. G. (2004). Posttraumatic growth: Conceptual foundations and empirical evidence. *Psychological Inquiry, 15*(1), 1-18.

Toray, T. (2004). The Human-animal bond and loss: Providing support for grieving clients.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26*(3), 244-259.

Ullman, S. E. (2000). Psychometric characteristics of the Social Reactions Questionnaire: A measure of reactions to sexual assault victim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4*(3), 257-271.

Weiss, T. (2002). Posttraumatic growth in women with breast cancer and their husbands: An intersubjective validation study. *Journal of Psychosocial Oncology, 20*(2), 65-80.

Worden, J. W. (2009). *Grief counseling and grief therapy*. New York: Springer.

Wrobel, T. A., & Dye, A. L. (2003). Grieving pet death: Normative, gender, and attachment issues. *OMEGA: Journal of Death and Dying, 47*(4), 385-393.

원 고 접 수 일 : 2022. 03. 11
수정원고접수일 : 2022. 05. 04
게 재 결 정 일 : 2022. 05. 12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22, Vol. 34, No. 2, 623-642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anion Animal Loss Grief and Psychological Growth: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Meaning Reconstruction and Positive Social Reactions

Sung-Ah Han
Ewha Womans University / Graduate Student

Sung-Kyung Yoo
Ewha Womans University / Professor

This study investigated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meaning reconstruction and positive social reaction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anion animal loss grief and psychological growth or posttraumatic growth. A total of 369 adults, who had lost their companion animals at least six months ago, participated in this study. Participants were asked to complete a questionnaire on Prolonged Grief Disorder, Grief and Meaning Reconstruction Inventory, Social Reactions Questionnaire, and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SPSS 23.0 and SPSS PROCESS Macro were used to analyze the results. The level of positive social reactions had a different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longed grief and posttraumatic growth as mediated by meaning reconstruc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rapeutic interventions that provide sufficient positive social reactions can be helpful in helping people who are suffering from psychological pain as a result of the loss of companion animal in reconstructing the meaning of loss and achieving psychological growth.

Key words : companion animal loss, prolonged grief disorder, meaning reconstruction, positive social reactions, posttraumatic growth